

민수기 20장 <가데스에서 일어난 일>

1 첫째 달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신 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다. 그곳에서 미리암이 죽어 땅에 묻혔다.

2-5 거기에는 마실 물이 없었다. 그들이 무리를 지어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다. 그들은 모세에게 비난을 퍼부었다.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어쩌자고 당신은 하나님의 회중을 여기 광야까지 끌고 와서, 사람이나 가축이나 모두 죽게 하는 겁니까?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비참한 땅으로 끌고 온 겁니까? 여기에는 곡식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물도 없는데 말입니다!”

6 모세와 아론은 몰려든 회중을 뒤로하고 회막으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7-8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네 형 아론과 함께 공동체를 소집하여라. 그들 바로 앞에 있는 저 바위에 말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에서 물이 날

것이다.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가축이 마시게 하여라.”

9-10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 앞에서 나왔다. 모세와 아론은 온 회중을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말했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야 하겠소?”

11 이 말과 함께 모세가 팔을 들어 지팡이로 바위를 세차게 두 번 쳤다. 그러자 물이 흘러 나왔다. 회중과 가축이 그 물을 마셨다.

12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신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를 거룩한 경외심으로 대하지 않았으니, 너희 두 사람은 내가 이 무리에게 주려고 하는 땅으로 그들을 이끌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13 이곳 므리바(다툼) 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다투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다.

14-16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

**“왕의 형제 이스라엘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왕께서는 우리가 겪은 온갖 고초를 잘 아실 것
입니다.**

**우리 조상은 이집트로 내려가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
와 우리 조상을 잔인하게 학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울부짖고 도움을 구하자, 하
나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습니
다.**

**이제 우리는 왕의 영토 경계에 있는 성읍 가
데스에 와 있습니다.”**

**17 “우리가 왕의 영토를 지나가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왕의 밭이나 과수원에 들어가지 않고, 왕의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큰길, 곧 왕의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왕의 영토를 다 지나갈 때까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18 에돔 왕이 답했다. “절대 안 된다! 내 땅에 밭을 딛는 순간, 내가 너희를 죽일 것이다.”

19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다.

“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큰길로만 다니겠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가축이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치르겠습니다. 우리는 위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밭이 부르든 여행자들일 뿐입니다.”

20-21 왕은 같은 답변을 보내왔다. “안 된다. 너희는 지나갈 수 없다.”

에돔 왕은 무장한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길을 막았다. 에돔 왕은 그들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돔을 돌아서 갈 수밖에 없었다.

22 이스라엘 백성 온 무리가 가데스를 출발하여 호르 산으로 나아갔다.

23-26 하나님께서 에돔 경계에 있는 호르 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이 자기 조상에게 돌아갈 때가 되었다. 그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하는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므리바 샘에서 내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이 거기서 자기 조상에게 돌아가 죽을 것이다.”

27-29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그들은 온 회중이 지켜보는 앞에서 호르 산으로 올라갔다. 모세는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다.

아론이 그 산의 꼭대기에서 죽자, 모세와 엘르아살은 산에서 내려왔다. 온 회중이 아론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삼십 일 동안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

시편 58편 <다윗의 시>

1-2 어찌하여 나라를 이처럼 경영 하느냐?

국회에 정직한 정치인이 있더냐?

너희는 막후에서 떠들썩하게 악을 꾸미고
닫힌 문 뒤에서는 악마와 거래하는구나.

3-5 악인들은 태어나자마자 잘못된 길로 간다. 모태에서 나면서부터 거짓말을 내뱉으니,
그들의 갈라진 혀에서 떨어지는 것은 독, 치명

적인 방울뱀 독.

그들은 위협도 흘리는 소리도 듣지 못하니, 수십 년 치 귀지가 귓속에 켜켜이 쌓인 탓이다.

6-9 하나님, 저들의 이를 박살내셔서

이빨 없는 호랑이 신세가 되게 하소서.

저들의 인생이 앞질러진 물이 되게 하시고

모래밭의 축축한 얼룩으로 남게 하소서.

저들이 짓밟힌 풀이 되게 하셔서

오가는 사람의 발길에 닳아빠지게 하소서.

저들이 달팽이 진액처럼 녹아내리게 하시고

유산된 태아가 되어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저들의 음모가 모양을 잡기 전에

쓰레기와 함께 내던져 버리소서!

10-11 의인은 악인이 벌 받는 것을 보고
친구들을 불러 모으리라.

악인의 피를 잔에 담아내어 함께 건배하리라.
다들 환호하며 말하리라.

“규례를 지킬 만하구나! 상을 주시는 하나님,
세상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구
나!”

시편 59편 <다윗의 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고 그의 집에 감시를 붙였을 때>

1-2 나의 하나님 !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
하시고 폭도들에게서 나를 지켜 주소서. 저들의
더러운 술수에서 나를 건지시고 저들이 보낸

청부 살인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3-4 무법자들이 뚝뚝 뭉쳐 나를 대적하고 매
복까지 하며 나를 노립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일에 휩싸일 짓을 하지 않
았고 누구를 속이거나 학대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나를 가만두지 않기로 작정한
듯, 나를 뒤쫓습니다.**

4-5 깨어나셔서 직접 보소서!

**주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
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일을 행하셔
서 저 악한 자들을 제거하소서. 잔학무도한 자
들이오니 봐주지 마소서.**

6-7 저들은 해만 지면 돌아와서 늑대처럼 짖어 대며 성 주위를 어슬렁거립니다. 그러다 갑자기 성문 앞에 모두 모여 욕설을 내지르며 단도를 뽑아 듅니다. 자신들은 절대 잡히지 않으리라 여깁니다.

8-10 그러나 하나님, 주께서는 저들을 비웃으십니다. 사악한 민족들을 웃음거리로 여기십니다. 강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 그 모습 바라보며 늘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때맞춰 나타나셔서 내 원수들이 파멸하는 꼴을 내게 보여주십니다.

11-13 하나님, 내 백성이 잊지 않도록 저들을 단번에 해치우지 마소서. 저들을 천천히 쓰러뜨

리시고 아주 서서히 해체하소서. 비열하고 거만
하게 내뱉은 저들의 온갖 말에 스스로 걸려들
게 하소서. 중얼중얼 내뱉은 온갖 저주와 뻔뻔
스런 거짓말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하소서.

저들을 말끔히 해치우소서! 영원히 끝장내소
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확실히 통치하심을, 하
나님께서 세상 모든 곳을 다스리심을, 온 세상
이 알게 될 것입니다.

14-15 저들은 해만 지면 돌아와서 늑대처럼
짚어 대며 성 주위를 어슬렁거립니다. 뼈다귀를
찾아 헤매다 먹을 것을 주는 손까지 물어뜯습
니다.

**16-17 그러나 나는 주님의 용맹을 노래하고
새벽에 주님의 과분한 선물을 큰소리로 이야기
하렵니다. 주님은 나에게 더없이 안전한 장소,
좋은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강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 그 모습 바라보며
늘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 든든한 사랑이신 하나님!

이사야 9:8-10:4

**8-10 주께서 야곱을 벌하시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셨다. 그 메시지는 이스라엘 집 문 앞에
도달했고, 모든 백성,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시민들 모두가 그것을 들었다. 그러나 교만하고 오만한 떼거리인 그들, 그 메시지를 묵살하며 말했다.

“뭐, 상황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우리는 뭐든지 대처할 수 있으니. 건물이 무너지면 더 크고 좋게 다시 지으면 되고, 나무들이 쓰러지면 다시 더 좋은 나무를 심으면 된다.”

11-12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들을 자극해 그들을 치게 하셨다. 원수들을 부추겨 그들을 공격하게 하셨다. 동쪽으로는 아람 사람들을, 서쪽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을 일으키셨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요절냈다.

그럼에도 아직 그분의 노는 풀리지 않으셨고,
다시 그들을 치시려고 높이 주먹을 쳐들고 계
신다.

13-17 그런데도 이 백성은 자기들을 치는 분
에게 무관심하다. 만군의 하나님을 찾지 않는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
를, 그 종려 가지와 갈대를 잘라내 버리셨다.
같은 날 한꺼번에.

그 머리는 우두머리 장로들이고, 그 꼬리는 거
짓말하는 예언자들이다. 백성을 이끌어야 할 그
들이 백성을 도리어 막다른 골목으로 끌고 들
어갔으니, 지도자를 따랐던 이들이 길을 잃고
갈팡질팡한다.

주께서 젊은이들에게 흥미를 잃으시고, 그들의 고아와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는 것은 그래서다. 그들 모두 사악하고 악독하며, 더럽고 아둔한 말들을 떠벌린다. 그럼에도 아직 그분의 노는 풀리지 않으셨고, 다시 그들을 치시려고 높이 주먹을 쳐들고 계신다.

18-21 그들의 악독한 삶, 건잡을 수 없는 불과 같다. 나무와 수풀, 잡초와 목초, 뭐든지 닥치는 대로 태워 버려, 온 하늘을 연기 자욱하게 만드는 불과 같다.

그 불에 만군의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다. 나라 전체에 불을 놓으셔서, 사람들 모두 불이 되게, 욕망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삼키는 불이 되게 하셨다.

만족을 모르는 그 욕망, 그들은 주위에 사람과 물건을 쌓아 놓고 게걸스럽게 집어삼킨다.

그래도 여전히 허기에 시달린다. 심지어 그들의 아이들도 그들의 탐욕스런 허기에서 안전하지 못하다.

므낏세가 에브라임을 먹어 치우고, 에브라임이 므낏세를 먹어 치웠으며, 그 둘이 유다를 해치려고 패를 지었다. 그럼에도 아직 그분의 노는 풀리지 않으셨고, 다시 그들을 치시려고 높이 주먹을 쳐들고 계신다.

10:1-4 악을 합법화하고, 희생자를 양산하는 법을 제정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가난한 이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내 빈궁한 백성에게서 존엄을 앗아 가며, 힘없는 과부들을 이용하고 집 없는 아이들을 착취하는 법을 만들다니. 심판 날, 너희가 무슨 할 말이 있을까?

청천벽력처럼 임할 그 운명의 날에, 누가 너희를 도울 수 있겠느냐? 돈이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때 너희는, 짐짝 취급받는 죄수나, 거리의 시체들 사이에 끼인 비참한 신세가 될 텐데.

그럼에도 아직, 이 모든 일로 그분의 노가 풀리지 않으셨고, 다시 그들을 치시려고 높이 주먹을 쳐들고 계신다. 앗시리아에게 화가 있으리라!

야고보서 3장 <말의 힘>

1-2 친구 여러분, 성급하게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르침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릅니다. 선생은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우리 가운데 완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입을 열 때마다 거의 매번 실수를 저지릅니다. 온전히 참된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삶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완전한 사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3-5 말의 입에 물린 재갈이 말의 온몸을 통제합니다. 큰 배라도 능숙한 선장의 손에 작은

키가 잡혀 있으면, 그 배는 아무리 거센 풍랑을 만나도 항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찮아 보이지만, 그 말은 무슨 일이든 성취하거나 파괴할 수 있습니다!

5-6 잊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불꽃이라도 큰 산불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주의한 말이나 부적절한 말이 그 같은 일을 합니다.

우리는 말로 세상을 파괴할 수도 있고, 조화를 무질서로 바꿀 수도 있고, 명성에 먹칠을 할 수도 있고, 지옥 구렁이에서 올라오는 연기처럼 온 세상을 허망하게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

7-10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호랑이는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길들일 수 없습니다. 이제껏 혀를 길들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혀는 사납게 날뛰는, 무자비한 살인자입니다.

우리는 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바로 그 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한 입에서 저주도 나오고 찬양도 나옵니다!

10-12 친구 여러분,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샘이 하루는 단물을 내고, 다음날은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사과나무가 딸기

를 낼 수 있습니까?

**딸기 덩굴이 사과를 낼 수 있습니까? 더러운
진흙 구덩이에서 맑고 시원한 물 한 잔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참된 지혜>

**13-16 지혜롭다는 평가를 듣고 싶습니까? 지
혜롭다는 평판을 쌓고 싶습니까? 여기 여러분
이 할 일이 있습니다. 제대로 살고, 지혜롭게
살고, 겸손하게 사십시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의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는 방식입니다.**

**야비한 야심은 지혜가 아닙니다. 스스로 지혜
롭다고 뽐내는 것도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롭게**

보이려고 진실을 왜곡해 말하는 것도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와는 한참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짐승같이 약삭빠르고, 악마같이 교활한 속임수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낮게 보이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할 때마다, 일은 엉망이 되고 서로 먹살을 잡는 것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17-18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거룩한 삶에서 시작됩니다. 참된 지혜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온유하고, 이치에 맞으며, 자비와 축복이 넘칩니다. 하루는 뜨겁고 다음날은 차갑고 하지 않

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평화롭게 지내고 품위와 예의를 갖춰 서로를 대하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건강하고 튼튼한 공동체를 세우고, 그 열매 또한 맛보게 될 것입니다.